

## 광주·여수공항 콘크리트 둔덕 로컬라이저 연내 개선

전국 7개 공항에 위험시설 확인...국토부, 활주로 등 점검 '사후약방문'  
제주항공 블랙박스 사라진 4분...같은 기종 절반이 '보조 배터리' 없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로컬라이저'를 비롯해 개선조치가 필요한 시설이 광주·여수공항 등 전국 7개 공항에서도 확인됐다.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정부는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가 안전구역 밖에서 설치

돼 규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개선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뒤늦게 전국 15개 공항의 활주로나 터미널 등 주요 시설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하기로 해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전국 13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LLZ) 등 항행안전시설의 위치, 재질 등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13개 공항의 로컬라이저 32개와 활공각 제동 시설(GP), 거리측정 장치(DME) 51개, 전방향 표지(VOR) 17개소에 대한 현장 점검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에서 무안공항은 별도 조사가 진행되고 군산공항은 미군이 관리하고 있어 제외됐다.

조사 결과 총 7개 공항에서 항공기와 충돌 시 쉽게 부서지지 않아 피해를 키울 것으로 우려되는 로컬라이저 시설이 발견됐다.

광주공항, 여수공항, 포항경주공항에는 각 1개씩 콘크리트 둔덕 형태의 로컬라이저 구조물이 확인됐고, 김해공항(2개)과 사천공항(2개)에는 콘크리트 기초가 일부 땅 위로 튀어나온 구조물이, 제주공항에는 H형 철골 형태의 단단한 구조물이 발견됐다.

양양공항은 시설 기초 부분의 지반이 일부 내려앉으면서 높이가 관리 기준인 7.5cm를 약 4~5cm 넘는 것으로 조사돼 즉시 조치됐다.

국토부는 "항행안전시설 외에 전국 공항 주요 공항시설에 대해서는 이날부터 21일까지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이번 특별 점검 결과와 종합해 안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특히 방위각 시설은 이달 중 개선방안을 마련해 연내 개선 완료 목표에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애초 규정대로 설치된 시설이라며 로컬라이저에 대한 문제 제기를 부정했던 입장과 다르다.

사고 기종인 '보잉 737-800' (B737-800) 특별 점검에서도 규정 위반 사례가 일부 적발됐다.

랜딩기어, 엔진 등 주요 계통별 정비 이력, 정비 절차 준수와 운항정비 기록 상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항공사에서 규정 위반 사례가 확인된 것이다. 국토부는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규정 위반 사례를 보면 유압계통 전기모터펌프 과열표시등이 점등될 경우, 결함 해소 절차에 따라 4종류의 필터를 모두 교체해야 하는데 1개 필터만 교체한 사례가 적발됐다.

일부 항공편은 정비사로부터 점검 완료 및 이상 유무를 보고 받은 뒤 승객탑승을 시작해야 함에도 사전에 승객을 탑승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또 블랙박스에 충돌 전 마지막 4분이 기록되지 않은 제주항공 사고 여객기에는 전력 공급 중단(셧다운)에 대비해 블랙박스에 전력을 공급할 일종의 '보조 배터리'가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운용되는 같은 기종(B737-800)의 절반 이상에도 이 장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항공사들의 모든 기종에 대해 보조 전원 공급장치 장착 여부를 확인하고 보완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달 말까지 11개 국적사의 안전 체계 전반과 전국 15개 공항의 활주로 및 터미널 등 주요 시설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항공기 이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환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7차 회의'에서 "사고조사위원회가 투명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사고가 난 비행기 동체를 조사 장소로 이동하고, 공항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 다양한 자료를 대한 조사와 분석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고기 블랙박스인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와 비행기록장치(FDR)가 사고 직전 4분간 저장 안됐다는 점에서 관제 기록, 영상물, 부품 정밀 조사 등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고 원인 규명을 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폐쇄 기간은 14일 자정에서 19일 새벽 5시까지 연장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최상목(오른쪽)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면담에 앞서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 경찰 "尹 체포영장 집행 방해 땐 적극 조치"

국회의원·백골단이 막을 땐 체포

경찰이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면서도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이라며 강경 입장을 밝혔다. 특히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른바 '백골단'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경우 체포 가능성도 시사해 영장 집행형성 공여부가 주목된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13일 브리핑을 통해 "인명피해나 유행사태 없이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사직으로 인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성훈 차장이 직무를 대행 중인

가운데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에게 "좋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 무조건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자주 인명피해 내지 유행사태를 유도하는 것 같이 우려스럽다"며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영장을 집행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경호처가 경찰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명분이 없다"고 강조한 뒤 "(경호처가) 무력을 사용해 방해하는 행위는 현장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더불어민주당 모경중

의원으로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의 체포 저지 행동에 대한 질문에 "적극적으로 체포를 저지하면 현행법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앞서 김기현·나경원 등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은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모여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육탄 저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이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 체포를 막기 위한 '백골단'을 출범해 논란을 빚은 '반공청년단'과 관련해서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현행법이 될 수 있다며 체포 가능성을 시사했다.

경찰은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성공시키기 위한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집행이 2~3일에 걸쳐 장기화할 가능성도 대비 중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민주 "내란특위 증인 윤석열 꼭 채택할것"

더불어민주당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주 청문회 증인으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들은 "이번 국정조사는 사법 절차를 앞둔 윤석열이 국민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마지막 기

회"라며 "윤석열의 증인 채택 여부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한 줌에 불과한 극우세력에 부화뇌동해 제대로 된 특위 활동을 거부한다면 국민적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위원들은 또 "(특위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과 구삼희 육군 제2기갑여단장을 비롯한 국정조사 회피하고자 하는 증인들은 지금이라도 당당히 국정조사에 임해 늦게나마 반성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내일이 아니라도 다음 주 청문회 출석 요구, 동행명령장 발부, 현장 청문회, 고발 등 국회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의대 정원 원점 재논의 제안...의료계 '냉담' ▶6면

새내기 호랑이들 "투수왕국 계보 있다" ▶18면

예향 - 소설가 정유정 "내 인생을 살아라" ▶22면

당신의 다음 클래스를 향해,  
그리고 당신의 여유로운 삶을 향해

The new EQA & EQB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월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인종 초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원 서비스센터 BP 062)942-7200/GR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도전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EQA 250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Wh) : 5(도상) 5.4, 고속도로: 4.6) 1회 충전거리(km) : 367, 공차중량(kg) : 1985, 배터리 용량(kWh) : 65.9  
EQB 300 4M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Wh) : 4.1(도상) 4.3, 고속도로: 3.9) 1회 충전거리(km) : 302, 공차중량(kg) : 2135, 배터리 용량(kWh) : 65.9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